

4.11 선택 D-14 광주일보-KBC 공동 총선·보선 여론조사 (전남)

전남 격전지는 나주·화순, 순천·곡성

9개 지역구 민주당 후보 압도적 우세 단체장은 순천 접전, 강진·무안 격차

4·11 총선을 앞두고 나주·화순과 순천·곡성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및 통합진보당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으며, 나머지 9개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일보와 KBC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5일 실시한 전남지역 총선 및 단체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나주·화순에서는 현역 의원인 무소속 최인기 후보가 39.9%의 지지율을 얻어 34.4%의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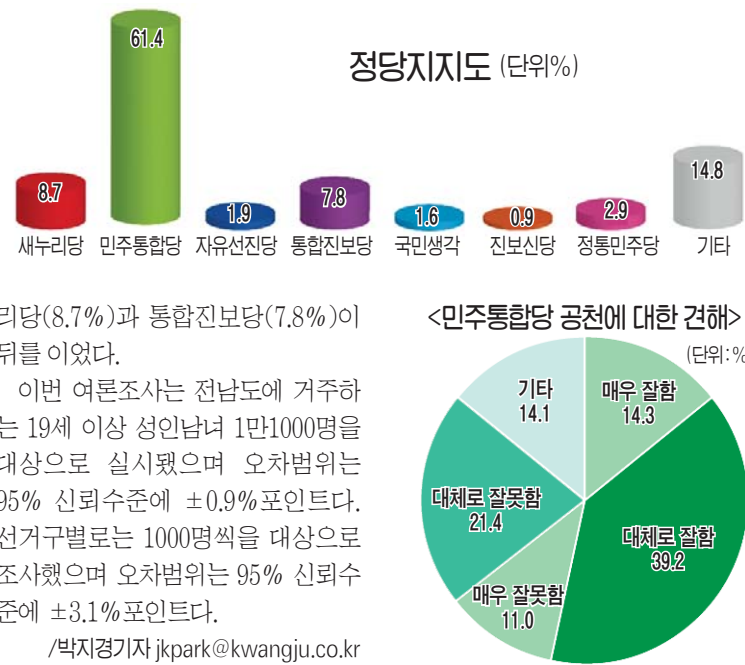
또 순천·곡성에서는 민주당 노관규 후보가 45.0%의 지지율로 41.5%를 얻은 현역 의원인 통합진보당 김선동 후보를 역시 오차범위 내인 3.5%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남지역 11개 선거구 중 2곳에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목포에서는 박지현(62.3%), 여수갑에서는 김성근(42.9%), 여수을에서는 주승용(65.4%), 광양·구례에서는 우윤근(46.6%), 고흥·보성에서는 김승남(50.1%) 등 민주당 후보가 통합진보당이나 무소속 후보 등보다 2~3배 높은 지지율로 각각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주당 소속의 황주홍(장흥·영암·강진, 53.2%), 김영복(해남·완도·진도, 52.3%), 이윤석(무안·신안, 60.3%), 이낙연(함평·영광·장성·담양, 69.3%) 후보도 압도적 지지율로 통합진보당이나 무소속 후보 등을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순천시장의 경우, 무소속 조중

훈 후보(24.9%)와 민주당 허정인 후보(23.7%)가 1.2%포인트 차의 초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반면, 강진군수와 무안군수의 경우 민주당 강진원 후보(71.0%)와 김철주 후보(41.4%)가 여타 후보를 큰 격차로 각각 제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공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3.5%가 '잘했다', 32.4%는 '잘못했다'고 각각 평가했으며,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61.4%로 압도적으로 앞선 가운데 새누



리당(8.7%)과 통합진보당(7.8%)이 뒤를 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남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0.9%포인트다. 선거구별로는 1000명씩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론조사 상보 3·4·5면, 통계표는 인터넷 광주일보(www.kwangju.co.kr)



비례대표 투표용지 인쇄
지를 오는 31일까지 인쇄할 예정이다.

광주 서구의 한 인쇄소 직원들이 2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할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전남에서 사용될 비례대표 투표용지/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은행 카드 이용자 84만명 최근 3년간 소비 분석해보니

高물가에 '짠돌이 소비'

외식비 18.4%·유류비 10.4% 가장 큰 비중 학원·교육비 지출 줄고 슈퍼마켓 많이 찾아

광주지역 카드이용자들의 최근 3년간 카드결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외식비와 유류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백화점보다 슈퍼마켓이나 할인점을 이용하고 자녀 학원비마저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광주일보가 광주은행 비자카드에 의뢰해 개인회원 84만5000명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용한 '회원 현황 및 업종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카드결제 금액 중 외식비(일반음식점)는 2009년 17.7%, 2011년 1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레저활동의 증가로 여행도 같은 시기 5.1%에서 5.2%로 늘었고, 골프

장 대중화로 인해 골프장 결제도 1.1%에서 1.5%로 늘었다.
천정부지로 오른 기름값은 주유비 카드 결제 비중과 대중교통 이용 비중을 동시에 높였다. 전체 카드 사용액 중 주유비·유류판매 비중은 2009년 9.8%에서 2011년 10.4%로 늘었으며, 대중교통 카드결제 금액도 1.0%에서 1.2%로 증가했다.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렸지만 지속적으로 오른 휘발유 값으로 인해 주유비·유류판매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에도 줄지 않던 학원·교육기관(학원업종) 결제 비중은 지난 2009년 4.6%에서 지난해 3.9%로 감소했다.

가정주부 이은숙(41·서구 화정동)씨는 "식비·외식비를 줄여도 가정경제가 나아지지 않아 이제는 아이들 학원비까지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백화점보다는 할인상품이 많은 슈퍼마켓을 더 많이 찾았다. 백화점·면세점 지출 비중은 2009년 4.1%에서 2011년 3.4%로 감소했지만 슈퍼마켓 결제비중은 9.7%에서 10.4%로 늘면서 유류비와 함께 지출 비중 상위(3위)를 기록했다.
또한 주부들에게 인기있는 홈쇼핑·인터넷 판매 결제 비중은 2009년 7.3%에서 지난해 6.5%로 줄어들면서 35개 항목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밖에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 통신·전자제품, 화장품, 의류, 가구 등 식생활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지출 비중이 감소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명숙 호남공천 파행 사과 광주 방문 선대위 출범식

민주당 한명숙 대표가 27일 광주를 방문해 국민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투신 사건 등에 대해 사과하며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는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 지역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황에서 공천 후유증을 극복하고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한 대표는 이날 나주·화순 선거구 배기운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광주시당 선대위 출범식, 광주 북을·서갑 정당사무소 개소식 등에 잇따라 참석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강조하며 민주당 깃발로의 결속을 호소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지난 공천 과정

에서 광주와 전남의 당원 동지들이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다"며 "대표로서 그 아픔을 함께 느낀다. 부족한 것은 모두 저의 책임"이라고 사죄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새누리당보다 나은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희망, 대한민국의 차기 집권세력으로 우뚝 서야 한다"며 "광주 시민들이 가혹하리만큼 민주당의 혁신을 요구한 것은 그대야만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간절한 변화의 열망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정권을 교체하고 의회 권력을 찾아올 유일한 대안이 민주당"이라며 "이곳 광주에서 새누리당이나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면 정권

교체로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호남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었는데 광주에서마저 민주당이 외면당하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광주에서 승리의 황새 태풍을 일으켜달라"고 덧붙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화병 이젠 한방(韓方)으로 다스린다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70531-중-359호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 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치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피츠 화병이 오래 지속되면 전신의 기운이 약해져 전신 무력감, 불면증, 우울증, 의욕저하 만성피로가 되고, 음식물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고, 먹어도 항상 속이 허하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결국 화병은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해소하는 것이 최상책이며 운동치료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환자 각각에게 어떠한 운동을 하라고 정해 주기도 하지만 각자 여러가지 운동을 해보아서 가장 스트레스가 잘 풀리는 운동을 택하면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하고 나서 더 스트레스 받고 열을 더 받을때는 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일 30분 이상 즐거운 생각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나고 즐거운 음악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거나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 것도 정신과 육체의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체의 균형과 안정을 취해주는 한약 및 침을 사용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마음이 안정되게 하며, 신체열을 하강시키고 하체는 따뜻하게 하여 심장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희한의원) 전 선형 원장

진료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침구과

진료시간: 평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주차장 안내 (※진료료 별도결제)

화정동 추선회관(추선회관)
송정리, 돌고개, 중앙병원, 경희한의원